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읽기능력 수준에 따른 기초 과학탐구능력과의 상관관계

이상균*, 김상달, 이용섭, 최성봉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요약

읽기능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읽기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이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보급처가 된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따라서 읽기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교육에서 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험실 수업, 탐구활동 만큼이나 중요하다. 과학에서 읽기는 다른 사람들이 습득한 지식을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 흥미 있는 과학에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또 학생들이 배경 정보나 설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미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도전하고 그들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기를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과학에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과학교육에서 읽기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며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습에 대한 접근이 분리된 접근에서 학생들에게 실생활 문제를 다룰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지식을 적용할 기회를 주어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과학에서 또한 다른 영역을 결합시키는 간학문적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 단계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능력 성취 정도를 알아보고, 읽기능력과 과학탐구능력의 상관관계와 읽기 능력 수준에 따른 과학탐구능력 하위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읽기능력과 기초과학탐구능력 사이에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능력 수준에 따른 기초과학탐구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기초과학탐구능력, 읽기능력